

[특집 논문]

기대와 좌절의 歷程

- 해방기 귀향소설에 대한 고찰

최계화

(중국 청도대)

차례

- | | |
|-----------------|------------------------|
| 1. 서론 | 2) 참혹한 현실의 반영 내지 폭로 비판 |
| 2. 귀향소설의 창작 배경 | 3) 동일성 회복의 문제 |
| 3. 귀향소설이 창작된 원인 | 4. 문학사적 의의 |
| 1) 인간의 귀소본능의 체현 | 5. 결론 |

1. 서론

1945년 8·15해방으로부터 1950년 사이의 문학을 보통 해방기 문학이라고 일컫는다. 그런데 해방기 소설분야에서는 소설적 방법의 재확립을 문제삼을 만한 작품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하여 어떤 논저에서는 이 시기를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치거나 혹은 아예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1945-1953년 휴전성립 사이를 거의 문학의 공백시기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¹⁾

실상 1945년 8·15부터 1950년 6·25까지 창작된 문학작품은 일제말기 문학의 양적인 빈곤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시대에 겪었던 위축상태에서 벗어나면서 작가들의 의욕은 소설, 그중에서도 단편소설에 많이 집중되었다. 붓대를 쥐었던 문인들, 새로 등단한 신인작가들을 포함하여 작가들은

1) 천이두, 『한국현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83(개정판), p.240.

같지 않은 주장과 부동한 주제 유형의 많은 소설들을 창작해 내었다. 그러나 해방기의 술한 사회적 격변은 어떤 의미에서 허구적 상상력의 위축을 초래하기에는 충분한 것이었다. 이 시기 소설가들이 가장 고심했던 것은 무엇을 써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물론 이것은 작가의 세계관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해방직후 대부분의 작가들은 현실의 혼란에 직면하여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소설적 세계로 형상화하여 놓을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요구에서 벗어나 소설 자체의 본질적 속성에 따른 리얼리티의 추구에 전념한다는 것은 간단치 않은 일이었다. 곽종원은 「창작계 4년의 개관」(《민성》, 1948.8)에서 “우리가 문예사상사적으로 보아서 그 주류의 포인트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해방기소설이 특정된 사회환경때문에 제대로 성숙되지 못했다 하여 결코 그 시기를 간과하고 지날 수 없으며 또한 해방기문학 자체는 자기로서의 존재원인과 문학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해방기 소설은 대개의 경우, 해방에 의한 고향회귀나 암담했던 식민지시대를 결산하는 문제, 좌익계열의 계급문학, 우익계열의 순수문학, 세태풍자 등을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 가운데서 계몽묵의 「별을 켜다」, 「바람은 그냥 불고」, 김동리의 「혈거부족」, 허준의 「잔등」, 엄홍섭의 「귀환일지」, 「집 없는 사람들」, 손소희의 「회심」, 정비석의 「귀향」 등은 고향회귀를 반영한 대표적인 소설들이다. 본고는 이런 소설들을 중심으로 고향회귀를 다룬 귀향소설이 창작된 원인과 그것들의 예술적인 가치 및 문학사적인 의의를 고찰해 보려고 한다.

2. 귀향소설의 창작 배경

작가와 작품은 역사적 산물이며 동시에 초역사적인 것에 참여하고 있다. 문학과 그 역사의 연구를 위한 참된 시학은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와 그 역사적 탐구의 결합에서 가능한 것이다. 한 시대의 문학적 특성은 이른바 시대정신의 향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그 시대의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상황 자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됨은 물론이다.

8·15해방은 한민족에게 있어 실로 감격적인 일이었다. 더욱이 힘든 일제말기의 극심한 압제 속에서 갑작스레 해방됨으로써 민족 전체는 거의 무조건적인 환희에 휩싸였다. 8·15해방은 갖가지 인적·물적 수탈정책과 민족문화 말살정책을 감행하였던 일제말기의 국가총동원 체제로부터의 풀려남을 의미하며 이는 곧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부터의 해방임을 의미한다. 그때의 감격과 환희는 “민족사에 있어서 거의 종교적이라 할 만한 체험”²⁾이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해방정국은 한국인 대다수에게 실망과 분노,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9월 8일 미군이 ‘해방자’의 신분으로 남한에 진주했고 미군정은 일본이 설치해놓은 모든 기구를 고스란히 인수하여 다시 사용하였다. 한편, 일제시대 일본에 철저히 예속되었던 한국경제는 해방이 되면서 일제가 패망함에 따라 연결고리가 끊어져 재생산체계가 급속히 허물어지기 시작하였다. 설상가상으로 공업이 북한에 압도적으로 편재한 상황에서 외세의 간섭으로 남북이 분단되면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해졌다. 남한경제는 전반에 걸쳐 파멸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해방직후 실업난, 주택난, 식량난이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게다가 이데올로기로 인한 좌우익의 정치적 대립은 날로 더해갔으나 전체 민족의 의지를 구현하고 그것을 결합시켜 나아갈 만한 주체적인 세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국가적인 법질서가 확고히 자리잡히지 못하였기에,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었고 특히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불안은 극심한 민족적 위기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렇듯 무한한 기대감을 가지고 맞이한, 무한한 희망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던 해방은 너무나 큰 실망과 좌절과 불안정감만 안겨주었다. “해방 죄선 독립 몸씨 좋고 또 기뻐서 목이 쉬게 만세를 부른 것이지만 그 만세소리가 앞은 신음소리로 변한듯 했다.”³⁾

해방기 문학의 한 갈래인 귀향소설은 이러한 사회·역사적 환경에서 창작되었다.

2) 염무웅, 『민중시대의 문학』, 창작과비평사, 1997, p.508.

3) 손소희, 「회심」, 《백민》, 1948. 5, p.138.

3. 귀향소설이 창작된 원인

본고에서 언급되는 귀향민은 전재민, 월남민을 모두 포함하며 귀향소설은 바로 그들의 생활을 반영한 소설들을 가리킨다. 귀향소설이 좌우익문단의 대립이 치열했던 1945-1948년 사이를 거치면서 6·25전쟁 전까지 끊기지 않고 창작된 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인간의 귀소본능의 체현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 항상 고향으로 ……” 이렇게 말한 사람은 18세기의 낭만주의 시인 노발리스이다. 인간은 고향을 찾아 헤매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인간이 잃어버린 자아를 회복하는 길은 고향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 그런 뜻으로 노발리스는 말한 것이다. 고향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 있어서나 절대적으로 안식의 장소였다.

월남민의 향수를 순수하게 보여준 서정적인 작품으로 김송의 「고향이아기」(《백민》, 1947.3)를 들 수 있다. 북한에 고향을 둔 채 월남하여 서울에서 신문사 기자행황을 하는 주인공 허(許)는 북한에 있는 매부가 장사차로 서울에 와서 들려주는 고향이야기에 무한한 향수에 젖는다.

잔뼈 굵졌고, 어린 사상이 영그른 고향-봄이면 뒷산에 올라가 진달래 꽃을 꺾고, 여름엔 풀은 물결이 찰랑거리는 바다에서 고기잡이 조개 줍기로 즐거운 소년시대를 보내든 고향……(p.67)

여러 개의 목선이 희망의 햇불을 달고, 북을 두리둥둥 울리면서 출어의 길을 떠난다. 돛을 높이 달고 배는 해심을 향해 나간다. 어부들은 취기에, 찬바람도 가을바람인 양 역이고 붉으레한 얼굴에 목성을 돌아서 『뱃다라기』를 흐므러지게 불은다. (p.71)

설령산 정자우에서 달맞이하든 옛추억-동해 수평선위에 등두란이 떠오르는 달이 눈속에 가득 찼다.

-달이 뜬다. 뜬다. 우워-달이 떴다. 떴다-

하며 여러 소년이 햇불달고 손벽을 치며 환호하던, 대보름 날 정취가 허의 정신을 아

물거리게 했다.(p.75)

고향에서의 소년시절, 출어 정경, 대보름날 달맞이 등에 대한 아름다운 회억은 고향에 대한 인간의 순수한 사랑과 그리움의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許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딸, 지어 여섯살먹이 아들까지 무한한 향수에 젖은 눈빛으로 고향의 모든 것을 그리워한다. 그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인간의 본능적인 향수로서 그 어떤 잡질도 섞이지 않은 가장 순수한 것이다. 소설에서는 창작 당시(1947.3)에도 치열했던 문단의 대립의 그림자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이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만을 노출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3.8선이 터짐 꼭 가리다.”라는 말로 귀향의 강렬한 염원을 표시하고 있다. 이 소설은 자기의 뿌리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그리움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처음 부산에 떨어져 울면서 땅을 어루만져 봤습니다. 그림고 그리운 건 조선의 물이드군요...”⁴⁾ 이것은 제국주의전쟁의 총알받이로 노예로 혹사당했던, 트럭도에서 겨우 살아 돌아온 이서방이 한 말이다. 그에게 있어서 고향은 조국과 동질적인 것이며 그에 대한 사랑도 역시 무조건적이었다. 그러한 감정은 만주에서 돌아오는 귀향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어찌 되었든 그 심저에 까라앉아서 흔들리울같이 없는, 한 방향으로 쏠리는 일정한 정서…… ‘향수한 이렇게 근본적인 것일까’”⁵⁾

한마디로 이 시기 귀향소설들은 내향적인 되돌아옴, 장소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고향(고국)으로의 본능적인 회귀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식민지통치에서 기인하는 주변장소와 대단위적인 실향과 향수의 상태로부터 내측으로 향한 귀환과 귀소를 보여주고 있다.⁶⁾ 뿐만 아니라 해방을 맞는 그들의 귀향 내지 귀국은 무조건적이었다.

……해방이 되자 동포들은 너두나두 짐들을 참기며 하로라도 속히 고국으로 도라와 모국의 완전독립을 위하여 싸우자는 결심들을 하게 되었으므로 종호도 그곳 살림

4) 안희남, 「불」, 『한국의 현대소설 1』, 민음사, 1985, p.134.

5) 허준, 「잔등」, 위의 책, p.64.

6) 이재선, 『현대 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p.33.

살이를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옷 보통이 몇개를 들고 도라왔든것이다.⁷⁾

중호는 “천진서 세탁영업을 하면서 여섯식구가 배는 골치 았었고 곤난한 동포가 찾아오면 용돈양이라도 쥐어주고 며칠씩 대접해 보낼만한 생활의 여유도 있었다.” 그래도 그는 해방이 되자 결연히 고국으로 돌아온다. 「혈거부족」의 순녀도 “이제 해방된 고국을 두고 이역 벌판에 외롭게 남아 살자”하지 않았고 「별을 헨다」의 주인공도 밤잠을 못 자면서 아버지 무덤을 파서 뼈마디를 추려 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들에게 있어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무조건적이었고 거기에 대해 추호의 유예도 있을 수 없었다. 이것은 어떤 이념을 가진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공통한 본능적인 감정이라 할 수 있다.

고향은 또한 안주할 수 있는 곳, 마음의 귀착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회심」에서 춘삼은 고향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자 월남하게 되고 서울에서도 살길이 없어 아내의 동냥으로 겨우 목숨을 이어간다. 그러다가 끝내는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려 한다. 춘삼에게 있어서 고향의 이미지는 땅이 있고 집이 있어 마음 붙이고 살 수 있는 곳과도 같다. 「별을 헨다」에서 주인공과 그 어머니는 분단으로 인하여 고향가는 길이 막히자 서울도 내땅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붙이고 삶의 터전을 닦으려 한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귀소, 고향회귀는 백프로의 고향회귀인 것이 아니라 생활의 안정된 구심점을 찾으려는 인간의 최소한 근원적인 욕망의 발현이며 삶의 안락함, 평안함, 행복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

이러한 귀향민들 앞에 나타난 문제는 의식주의 문제였다. 이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들로는 김동리의 「혈거부족」, 엄홍섭의 「집 없는 사람들」, 홍구범의 「봄이 오면」, 손소희의 「회심」 등등이다. 그중에서도 주거공간의 결핍은 전반 귀향소설에서 보편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였다. 현진건의 「운수좋은 날」, 최서해의 「박돌의 죽음」, 「기아와 살육」, 「탈출기」 등에서 주로 묘사한 것이 집의 결여보다 기아에 치우쳤다면 대부분 귀향소설은 기아보다도 집문제를 더 중요시한 것 같다. 따라서 귀소본능은 어쩔 수 없이 집과 관련

7) 엄홍섭, 「집 없는 사람들」, 《백민》, 1947.5, p.63.

을 갖게 된다.

집은 인간 삶의 근원적인 구조로서 ‘산다’는 것은 곧 집이라는 장소를 배제해 놓고 살 수 없다. 방은 보호하는 주거의 근원적인 기능을 하는 비호성 장소이자 공간이다.⁸⁾ 귀향민들에게 집이 있었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형태의 것이었는가?

1. 집이라고 가마니 한겹으로 겨우 둘러싼 산경의 단간초막.(『별을 헐다』)

2. 이 산줄기를 타고, 허연 신작노가 크다랴게 카아부를 그리며 돌아간 산지일대의 구멍들속에 그들은 살고있었다.(『회심』)

3. …… 벌써 반년이 넘었건만 아직도 집 한칸을 구하지 못하여 밤만 되면 여섯식구가 남의 집 마루끝에서 웅기종기 쪼구리고 앉은채 날을 밝히는 신세가 되고말았다.(『집 없는 사람들』)

4. 어느때는 집웅(장춘단공원 널판집)에서 자든 사람들이 푹뽕처럼 굴러떨어질 때도 있다.(『혈거부족』)

가마니로 둘러싼 초막집, 방공호, 남의 집 마루끝, 널판집과 그 지붕에서 사는 사람들, 이들의 주거공간을 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호성이 전연 없는 공간이 된다. 안주할 곳이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귀향은 좌절, 실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인간의 삶에서 어머니 품은 그의 우주이며 가장 근원적인 장소이다. 이 품에서 자양의 젖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품속에서 가장 안일하고 쾌적한 잠을 잘 수 있으며 또 모든 위협으로부터 최대한의 안전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성장함에 따라 이 어머니의 품은 집과 고향과 나라로 공간적으로 확대된다. 인간의 일생이란 이런 의미에서 보면 끊임없이 안주할 집을 찾고 또 짓는 작업의 연속이다.⁹⁾ 어머니 품과 같은 조국과 고향, 외계의 추위와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따스한 방 한 칸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 그 본능적 욕구의 강렬함, 좌절로 인한 애절함을 보여주려는 것이 귀향소설이 창작된 한 원인이라고

8) 이재선, 『한국문학의 원근법』, 민음사, 1996, p.138.

9) 위의 책, pp.145~146.

할 수 있다.

2) 참혹한 현실의 반영 내지 폭로 비판

귀향소설은 해방기의 혼란하고 불합리한 현실을 반영하고 폭로 비판한 소설 가운데의 한 부류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어떤 경우라도 현실부정 위에서 출발하며 현실의 모순기능을 고발하고 분노하는 일과 이를 초월하고자 하는 환각이 동시에 작용하는데 전자는 적극적인 것이며 후자는 원본적인 것이다.¹⁰⁾ 현실의 모순기능을 고발한 귀향소설이 속속 발표되었다는 것은 귀향민문제가 전 사회적인 중요한 문제로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당시 현실은 김동리와 같이 인간의 구경적 삶을 추구하면서 구체적인 역사환경이 거세된 작품을 써내던 작가도 「혈거부족」과 같은 귀향민소설을 쓰도록 한 극한적인 상황이었다.

일제의 식민지하에서 할 수 없이 고향을 떠났거나 제국주의 전쟁때문에 강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해방이 되자 제각기 고향으로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1944년 한국 총인구의 11.6%가 국외에 거주하고 있었고¹¹⁾ 1945년 10월부터 1947년 12월까지 남한으로 유입한 인구는 총 240여만 명으로 남한인구 중 15%의 비율을 차지하며 월남민은 5.4%로 나머지가 모두 전재민이라고 한다.¹²⁾

사회경제가 극히 무질서하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엄청난 숫자의 실향민의 귀향은 설상가상으로 전반 사회를 극도의 혼란에 처하게 하였다. 이때 사회적인 혼란과 먹고사는 문제는 기실 전반 사회적인 문제로 나서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귀향민이 겪는 고통이 가장 컸다. 그리하여 귀향민문제가 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귀향소설은 바로 그러한 현실상황에서 창작되면서 현실을 작품화하고 있다.

귀향소설을 발표순으로 훑어보면 그것은 그야말로 기대와 부풀 희망에서 좌

10) 김윤식, 『한국현대현실주의 소설연구』, 문학과지성사, 1990, p.296.

11) B.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1986, p.91.

12) 이병순, 『해방기 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7, p.370.

절로, 어둠 속으로 가는 길이었다.

1946년 2월과 10월에 발표된 「귀향」과 「귀환일지」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마을이 가까워 올수록 눈에 익고 기억에 새로운 산천들이어서 최노인의 걸음걸이에는 기운이 새로웠다. 이십년전에 고향을 떠날 때에는 울면서 꼬불꼬불한 산길을 걸었건만 인제는 탄탄대로를 횡그러이 걸어오게 된것도 무슨 행운의 상징인것 같았다. 떠나가던 운명과 돌아오는 운명과는 소양지판으로 다르게 느껴졌다.¹³⁾

어느 틈에 회색빛 새벽은 물러가고 새밝은 아침해가 동쪽바다를 물들이기 시작한 다. 두 건국둥이를 실은 귀국선은 현해탄의 성난 파도를 헤치며 부산을 향하여 서북으로 서북으로 한창 돌진하기 시작했다.¹⁴⁾

꼬불꼬불한 '산길/탄탄대로, 울면서/횡그러이, 회색빛/새밝은'으로 대조되면서 보여주는 것은 고향 회귀의 기쁨과 앞날에 대한 희망이다. 그것은 어딘가 현실적 기초가 없는 맹목적인 기대였고 기쁨이었다.

고향을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귀향의 길 역시 순탄하지 않았다. 「집 없는 사람들」의 종호는 천진서 거의 한 달만에야 배편으로 인천에 상륙하였고 「별을 헨다」에서 주인공과 어머니는 차로 오자던 고향이 뱃길이 안전하다고 뱃길을 돌아서 인천에 내렸다가 다시 이북으로 가려니 삼판선이 그어져 길이 막혀버렸다. 「잔등」에서 주인공은 장춘서 회령까지 스무하루를 왔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아득하다. 기차가 보장되어 있지 못했고 추위도 엄습해왔으며 여비도 딸리는 험한 여정이었다.

그렇지만 귀향 후의 현실은 더욱더 참혹했다. 당시 한 자료¹⁵⁾는 1946년 11월 전재민의 9할이 극도의 영양부족 상태이고 기아, 병사자는 그 수를 알 수 없을 정도이며, 특히 부산지방 범죄자의 6할이 전재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사실

13) 정비석, 「귀향」, 《경향신문》, 1946.10.11.

14) 엄흥섭, 「귀환일지」, 《우리 문학》, 1946.2.

15) 「귀국한국인의 생활실태」, 《동아일보》, 1947.1.11.

을 전해주고 있다. 또한 1946년 11월초 노숙을 하는 전재민이 약 3800여 명, 주택이 필요한 전재민이 약 10만 세대였다고 한다. 따라서 귀향민을 다룬 소설은 의식주해결을 주요한 문제로 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김동리의 「헐거부족」에서 주인공 순녀는 봉천에서 해방을 맞자 남편과 함께 안동-신의주-평양을 거쳐 서울에 도착하나 고향까지 돌아갈 여비가 없게 되고 보통이 속에는 냄비 하나와 숟가락 셋과 어린애 기저귀가 들어있을 뿐이다. 서울에서 밥을 빌어먹다가 남편까지 죽게 되자 그는 고구마장사를 하고 있던 황생원의 어머니의 소개로 방공호나마 얻어 딸과 함께 산다. 무치한 인간에 의해 방공호가 매매되고 순녀는 검탈의 위협에 처하고 굴이 무너져 사람이 죽는 일까지 일어나도 모두들 무기력하다. 결국 작가는 그들이 현실을 그대로 감내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다.

엄홍섭의 「집 없는 사람들」 역시 집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싸늘한 세태인정과 적산가옥의 부당한 분배문제를 고발하고 있다.

해방이 되자 천진에서 인천에 와 닿은 종호네 가족은 집이 없어 남의 집 마루에서 기거한다. 사과장수로 목숨을 겨우 연명하는 그는 정치를 마련하려고 애쓰나 고국의 동포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일 뿐이다. 인민원호회와 전재민동맹이 주택을 알선한다기는 하나 전재민이 너무 많아 바랄 수는 없었고 전재민 자신들이 빈집, 빈방을 기웃거리며 조사해 오지 않으면 그들도 엄두를 못냈다.

어떤 집은 불과 두세식구밖에 없어보이는데 문패는 세개네개씩 달린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은 확실히 빈방이 두세칸씩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골서 친척이 곧 오기로 되었다는 이유로 동거하자는 청을 거절하는 자도 있고 또 어떤 집은 현재 자기 한세대밖에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령세대를 만드려놓고 전재민이 혹시 들어올까봐 방어진을 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백민》 3권 3호 p.62)

적산가옥은 이미 모리배의 책동으로 부정점유되었고 할 수 없이 방공굴로 들어가려 해도 역시 만원인 상태다. 마지막 부분에서 어느 드높은 담 밑에 거적을 덮은 걸인가족이 떨고 앉아서 하는 “얼어죽어두 고국에 드려와 죽으면 타국서 죽는 것보다는 좀 낫겠죠!”라는 말은 차거운 인정세태와 불합리한 사회에

대한 고발과 함께 귀환한 것에 대한 후회를 보여주고 있다.

계몽록의 「별을 헨다」(1946.12)는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열망했던 우리 민족이 예기치 않았던 남북 분단으로 하여 겪던 고통을 재현했고 법보다 폭력이, 순리보다 억지와 비리가 지배하는 현실을 폭로하고 있다.

주인공은 독립이 되자 제 땅에 뼈를 묻게 된다고 기꺼워하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뼈마디를 추려가지고 고국에 이르렀지만, 인천에 와 당고 보니 삼팔선이 그어져 이북의 고향으로 갈 수가 없게 된다. 그래도 처음에는 일본집 다다미방 한 칸을 얻어 겨울을 지냈으나 봄이 되자 수숙을 하지 않았다고 쫓기워 산비탈에 초막을 엮어 지낸다. 선량하고 양심적이며 인정이 있는 주인공이 다른 사람을 내쫓고 그 집에 들 기회를 포기하는데 대해 그의 친구는 그런 맘 쓰다가는 이 세상에서는 못 산다고 비웃는다. 확실히 그의 친구는 점퍼를 흥정하는 총소리 없는 전쟁마당에서만 용사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원래 주인공과 같은 처지였으나 인제는 커다란 회사의 중역이 살던 반양식의 빨간 기와집에서 살았고 살림의 틀이 잡혀가고 있었다. 작품은 거래도 모르고 양심에 눈감은 무리들은 돈이나 재산을 모으고 양심적인 사람들은 밥을 굶고 거처도 없이 밤이면 별을 헤는 현실을 생생한 화폭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실 귀향민들의 궁핍은 피부로 느끼는 참상도 참상이려니와 귀국시 품었던 여러 가지 기대의 좌절로 인해 더욱 가혹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기쁨이 그동안의 고향 상실감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조국에 가서는 이제 배불리 먹고 풍요롭게 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한껏 부풀었던 그들은 그 기대가 무참히 깨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더욱 비참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고향에 돌아가 개나 몇 마리 구해 먹으면 병이 떨어질 것이라고 남편을 위안하던 순녀는 개는커녕 구걸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형편이 된다. 「혈거부족」 의식주의 해결조차 이국에서보다 더 원만하지 못하게 되자 실향성의 회복은 의미가 없게 되고 남의 나라 땅에서나마 배불리 먹었던 과거를 그리워할 지경이 되고 만다.

이로부터 가난을 자신의 팔자로 여기는 운명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거나(손소희, 「회심」) 점점 타락해 갈 수밖에 없게 된다.(김광주, 「악야」)

한편 귀향소설 가운데는 ‘불귀’의 문제를 다룬 작품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그것은 제국주의전쟁의 총알받이로 무고한 희생을 당했거나 노예적 노동에 혹사당하다가 집단학살까지 당한 예가 수두룩한데서 그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죽어서 백골로 귀환하거나 영영 돌아오지 못하기도 한다. 계용묵의 「바람은 그냥 불고」에서 징병령으로 전쟁에 나간 김진수는 해방이 되어도 끝내는 돌아오지 못한다. 그뿐이 아니다.

젊은이는 그러면서 짐을 끄르고 흰 보자기에 싸인 상자 하나를 공손히 두손으로 받들어 연이의 앞에다 내밀었다. 유골이란 그런 유식한 문자를 촌색시네가 알 턱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란것을 연이는 벌써 누구보다도 잘 느껴 알수 있었다.¹⁶⁾

박이동이가 죽은것이 삼룡이가 죽은것과 뭐가 달른가. 도수장에 끌려가 도끼로 머리를 맞고 쓰러지는 소를 생각하며 굴속에서 일하다가 등푼에 바위를 맞고 죽는 사람을 연상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넉넉히 빈 쇠오양간을 보고 기다려도 기다려도 그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 빈 방을 생각할 수 있었다.¹⁷⁾

「개나리」에서 연이 남편은 백골이 되어 돌아온다. 그리고 「소」에서 징용에 끌려갔던 박이동이는 탄광에서 이외의 사고로 불귀의 고혼이 되고 만다. 이들은 모두 “훼손된 귀환이거나 소멸된 귀환상태”¹⁸⁾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귀향소설은 사회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의 참혹한 현실을 잘 드러내고 그 암흑성을 폭로 비판하고 있다.

3) 동일성 회복의 문제

해방을 맞은 민중들이 가진 경제적 기대 외에도 당시 전 사회적으로 민족적 동일성 회복의 요구와 민족의 주체성 확립의 요구가 제기된다. 그러나 그것은

16) 최인옥, 「개나리」, 《백민》, 1948.

17) 안희남, 「소」, 《조광》, 1946.3.(복간).

18) 이재선, 앞의 책, p.37.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었다. 해방기 귀향소설들은 귀향민들의 귀향시 품었던 기대가 파멸되고 그들이 고국에 뿌리내릴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어 동일성 회복의 어려움을 제시해준다.

귀향민들에게 있어서 해방의 의미는 이국생활의 청산과 고국안주의 꿈으로 점철된다. 특히 전재민들은 이미 상당 기간의 이국생활로 그곳에서 뿌리를 내렸지만 해방은 그들을 무작정 고국으로 흡인하였다.

(고향에 돌아간다)

두눈에 불을 켜듯하여 있는 그 야릇한 광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듯 하였다. 그의 전 생명, 그의 전 의욕, 그의 전 희망은 일럼, ‘고향에 돌아간다’는 야릇한 광채만이 되어 그의 두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듯하였다.〔혈거부족〕

전재민의 고국으로 돌아 가려는 이런 강렬한 희망은 대부분 귀국이후 안주의 꿈이 실현되지 않음으로 해서 좌절을 겪게 된다.

그렇다면 타국으로 흘러가서, 간신히 의지하고 살던 집과 농사하던 땅이며 농사진 곡식, 애탄개탄 장만한 세간과 더러는 어머니까지도, 해방은 우리에게서 뺏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서 준 것은 압제 없는 살기와 살 집과 농사할 땅과의 대신에 입었던 옷을 누더기로 만들게 한 것과 석탄부스러기와 밀가루와 쓰러져가는 저 알량한 집과 이것이 아닌가?¹⁹⁾

이상은 영호가 해방이후 조국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잃고 어두운 현실을 겪고난 뒤 보여주는 생각의 일단이다. 영호 부모가 일제하에서 만주로 건너가고 생끝에 장만해 놓았던 집과 토지를 고국안주의 꿈때문에 버리고 일가족이 귀국 길에 올랐지만 조국이 영호네 가족에게 선물한 것은 부모, 자식간의 이별과 불안정한 삶일 뿐이었던 것이다.

19) 채만식, 「소년은 자란다」, 국제펜클럽 한국본부편, 『한국중편소설문학전집』 2, 을유문화사, 1974, p.193.

이런 기대의 좌절은 주거공간의 불안정성으로 집약화할 수 있다.

산간초막, 방공호, 여관방, 정차장, 지하실, 처마끝 등 주거지는 임시적이고 가설적이며 외부 위협에 노출되어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귀향민의 삶은 거의 불안감, 좌절감으로 채색되어 있고 과거와 미래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모습이다.

「별을 헨다」의 주인공이 “노력만 하면 먹고 살기는 걱정 없었고, 산도 물도 정을 붙이니 이국같지 않은” 만주를 떠나 귀국한 데는 고국안주의 기대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지붕없는 산간초막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것도 산 지기에게 헐릴 운명에 있다. 주인공이 그의 친구처럼 “충소리 없는 전쟁마당의 용사”가 되지 못하고 순진형의 유약한 삶을 계속하는 한 돌아온 고국의 남과 북 어디에서도 뿌리내릴 수 없다는 데서 좌절감은 절정에 달한다. 그런가 하면 황순원의 「두꺼비」에서 양옥집 상층에 사는, 점잖게 방을 비워달라는 김장로의 이기심은 전제민인 현세가 귀국하면서 가졌던 기대를 무너뜨리는 구체적 원인이다. 현세가 거처하는 양옥의 하층은 두꺼비로 은유되는 탐욕스러운 인간형들의 상층적 중력에 눌린 전제민들의 삶의 압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현세가 귀국하면서 동포들에 대해 “가슴속 뜨거이 흐르고 있었단” 감정, 곧 “한 고국을 가진 같은 겨레라는 느낌”과 그러한 따뜻함 속에서 고국에 정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단지 몽상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외에도 귀향소설에는 외적 위협에 대한 보호성을 의미하는 부성의 상실이 나타난다. 「혈거부족」에서 순녀의 남편이 귀국 직후, 「별을 헨다」의 주인공의 아버지가 귀국 직전에 죽는가 하면 「소년은 자란다」에서는 귀국 직후 부자가 실수로 헤어지고 만다. 이런 부성 상실은 주거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더불어 해방 이후 한 가족의 생활의 불안정성, 뿌리없는 삶을 초래케 하고 고국안주의 꿈을 좌절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모성 상실을 보여주는 작품(주요섭, 「입을 열어 말하라」)에서 어머니가 상징하는 것은 조국이 되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부재하는 현실은 기대와 어긋난 해방 조국의 현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집이 우리의 비호(庇護)와 휴식의 가장 친밀한 공간이며 장소임을 가장 절실히 느끼게 하는 때는 겨울과 고달픈 여행, 그리고 노동에 지친 경우이다. 집은

사람을 유동하는 삶으로부터 정주(定住)시키고 밤과 겨울 추위와 같은 외부세계의 무서움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실향민의 경우 오랜 떠돌이생활과 고역의 끝에, 혹은 몇 달씩 지속되는 여로의 고달픔 끝에도 정주할 장소인 집이 없다는 것은 해방으로 인하여 완전히 우리에게 돌아온듯하던 조국과 고향이 실상은 아직도 외세에 의해 조종되고 우리에게 주인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없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기대치와 달리 심각한 집의 부재상태는 또한 새로운 실향성을 연출하게 된다. 「별을 헐다」에서 모자간은 남북분단으로 하여 이북의 고향으로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집이 없어 남쪽에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태웅의 「집」에서 R 역시 집이 없어 남쪽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북으로 간다. 「회심」의 춘삼은 월남했다가 땅도 없고 집도 없어 정착 못하고 이북으로 다시 돌아가려 한다. 아내의 “고향가두 집두 없으면서 어디루 간다고 편할까”하는 말에 “그러문 만주라두 가야지”하고 한다. 이렇게 귀향민은 현실에서 또다시 실향민으로, 떠돌이로 된다.

작품에서의 전재민가족은 사실 ‘민족’의 은유화된 형태임을 발견할 수 있다. 일제하에서 고국을 떠났던 전재민이 해방이후 다시 밟는 조국의 땅은 바로 식민시기에 자기 동일성의 위기를 맞아야 했던 민족이 새롭게 뿌리내려야 하는 자리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전재민의 고향 회복 의식은 민족적 동일성²⁰⁾ 회복 의식이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귀국은 조선인으로서의 자기 뿌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의 구체적 표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향 회복 의식은 귀국후 새로운 실향의식으로 대체됨으로써 동일성 회복에 장애를 받는다. 즉, 돌아온 고국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소외경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귀향소설에서 이들이 겪는 주거확보의 어려움과 주거지의 불안정성은 단순히 주거시설 부족이라는 해방이후 세태풍속의 단면만을 보여주고 있

20) 동일성 혹은 아이덴티티라 함은 자기의 연속성, 단일성 또는 독자성, 불변성을 의미한다. (Eric Erikson, *Identity: Youth and Crisis*, 1968, p.183) 그러나 아이덴티티는 비단 개인의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집단에도 해당하는 것이다. 전자를 개인의 아이덴티티라 명명한다면 후자를 집단의 아이덴티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집단의 아이덴티티는 하나의 집단에 공통된 동류의식, 혹은 “집단의 내적인 연대의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민족적 동일성 개념 역시 집단의 아이덴티티중의 하나이다. (박아청, 『아이덴티티의 탐색』, 정민사, 1984, p.14)

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귀국이후의 현실이 고국안주의 꿈과 얼마만한 거리를 가졌는가를 기늩해 보임으로써 동일성 확보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부성과 모성이 국가, 국토를 상징한다면 주거의 불안정성과 더불어 부성, 모성의 상실 역시 민족적 동일성 회복의 장애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셈이다.²¹⁾

이러한 민족적 동일성 획득에 있어서 장애의 문제는 해방기의 작품외적 현실에 있어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정치문화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민족적 동일성 획득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포착한 작가들은 귀향소설을 통하여 해방이후 민족이 성취해야 하리라 기대한 민족적 동일성 회복의 장애를 반영한 것이라고 유추해 낼 수 있을 것이다.

4. 문학사적 의의

해방기의 문학은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준 발랄한 가능성과 함께 분단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그 첨예한 단초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 문학의 이데올로기로 고정되기 이전의 민족문화적 순결성을 갖고 있다. 즉 일제시대 문학사의 단절과 단절기 이후의 새로운 발전적 계승의 가능성과 함께 남은 문학사로 궁핍화되기 이전의 전체성과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문학사 속에서 특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²²⁾ 단절기 이후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에서, 특정한 역사현실의 재현이라는 각도에서 해방기소설은 그 소설적 형상화의 미성숙에도 불구하고 자기나름의 가치와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귀향소설 역시 해방기문학을 형성하는 한 갈래로 자체의 존재가치와 의의를 갖는다.

귀향소설은 현실을 반영하고 그것을 비판 폭로한 리얼리즘 계열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21) 박재섭, 『해방기소설연구』, 이우용 편, 『해방공간의 문학연구』, 태학사, 1990, p.198.

22) 임진영, 『8.15직후 단편소설연구』, 위의 책, p.233.

문학예술의 창작방법이나 기법적 측면에서의 리얼리즘 개념은 작가의 주관이나 개성보다는 묘사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현상을 충실하고도 정확하게 인식 재현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태도를 가리킨다. 그러나 리얼리즘 개념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은 구체적인 사회 역사적인 존재로서의 창작주체인 작가가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 사회현실의 여러 가지 구조적 모순들을 비판적이고도 변혁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보다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제시하고자 하는 문학적 이념이나 작가적 태도를 말한다.²³⁾

그렇다면 귀향소설은 현실을 리얼하게 묘사하는 창작방법적 한계에 머무른 것일까 아니면 가장 본질적인 리얼리즘의 개념을 체현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귀향소설은 모사적 리얼리즘²⁴⁾에 속하고 마느냐 아니면 비판적 리얼리즘²⁵⁾에 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1887년에 하크니스의 『도시처녀』를 읽고 작가에게 보낸 편지에서 엥겔스는 “리얼리즘이란 세부묘사의 충실성 이외에 전형적인 상황 속에서 전형적인 인물을 창조하는 것이다.”라는 명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비추어 본고는 귀향소설의 인물형상과 사회환경묘사가 현실세계의 본질과 핵심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그것이 어느 차원의 리얼리즘 소설인지를 판단하려 한다.

해방기 귀향소설에 나타난 인물들을 고찰해보면 대체상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인간상이다. 「별을 켜다」의 주인공은 식민지 지식인들의 속성대로 행동성이 없는 소극적이고 소심한 인물이다. 그는 상당히 선량하고 양심적이며 인정이 있는 동시에 주어진 현실을 과감하게 헤쳐나가려는 의지가 부족한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인물이다. 친구가 점퍼홍정을 하는 것을 보고 “무서운 판이었다. 총 소리 없는 전쟁마당이다……여기 모여 웅성이는 이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러한

23) 공준구, 『한국현대문학론』, 국학자료원, 1997, pp.120~121.

24) 모사적 리얼리즘은 반영대상으로서의 사회현실을 세밀하고도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 그칠 뿐 사회현실에 대한 의미있는 선택을 통한 본질적인 접근까지는 이르지 못한 수준의 리얼리즘을 말한다. 이와 같이 부조리한 사회현실에 대한 무비판적, 사진적, 피상적 제시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모사적 리얼리즘에서는 부조리한 사회현실의 발생원인에 대한 구조적 통찰력이나 본질적 해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위의 책, p.124.)

25) 비판적 리얼리즘은 자본주의사회의 객관적인 시대상황이나 여러 가지 구조적 모순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총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그것들의 발생배정에 대한 구조적 통찰을 제시함은 물론 독자들이 하여금 자본주의사회의 비인간적이고도 부정적인 측면에 눈뜨게 만들어 독자들의 비판의식이나 현실인식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문학적 이념을 지닌 리얼리즘을 말한다.(위의 책, p.126.)

소리없는 충들을 마음속에 깊이들 지니고 있는 것일까. 빗 맞을까봐 겹이 바르다.”고 생각하며 “만주서 나온 사람들이 야미장사를 해서 돈 모은 사람들이 많은데” “끓으면서두” “그런건 피익픽 옷”기만 한다. 이북의 고향으로 가려던 것이 무의미하게 되자 그에게는 무서운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길이 몽땅 차단된다. 즉 그는 참혹한 현실에 직면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지는 못하고 피해갈 궁리만 하며 현실과의 단 한 차례의 싸움의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채 좌절에서 체념, 적응으로 이른다. 「혈거부족」의 순녀, 「집 없는 사람들」의 주인공, 「회심」에서 모든 것을 팔자에 미는 춘삼이, 「악야」에서 현실의 암흑에 먹히워 타락하는 쏘니야, 「개나리」의 순이 등등은 신분적 차이가 있을망정 모두 현실의 패배자이며 현실에 소극적으로 순응하고 마는 인물이다. 안휘남의 「불」에서처럼 비록 도식적이기는 하나 “현것을 파괴하고” 좋은 새세상을 위해서는 새로 살려는 결심을 하는 이서방과 같은 인물은 극히 드물다.

이런 전형적인 인물군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전방 상실의 사회구조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당시 사회적인 조건은 ‘좌절된 해방’의 민족사적 패배의식 외에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마저도 달성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어두운 시기였다. 일제시대의 연장선에 있는 미군정시기의 어두운 현실은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불가지론이나 허무주의에 빠져들게 했다. 따라서 귀향소설은 대부분 구체적인 낙관적 전망이 없는 부정적 전망의 소설로 볼 수밖에 없다.

귀향소설에서 묘사된 사회환경은 대체로 단편적이고 평면적인 데 머무른다. 그중에서도 사회적인 특징이 비교적 잘 드러나는 것을 든다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다.

1946년 1월에 발표된 「잔등」은 귀향 노정에서 본 무질서한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무개화화에 가득 올라앉은 전재민들, 시간이 고정되지 않은 기차운행, 돈 있는 일본사람을 잡아내는 소년, 어린애를 업고 끌고 동냥하는 일본인, 이것들은 한데 조합되어 갓 해방된 시기의 전형적인 환경을 이룬다.

겨레도 모르고 양심에 눈감은 무리들은 골목마다에 차고 땀으로 시간을 삭이는 무리들은 일터마다에 찼다. 차고남아 거리를 범람하는 무리들이 다들 밤이면 별을 세다가 오라는데도 없는 걸음이 이렇게도 싱겁게 배 바쁜 것인가 (「별을 헐다」)

...인천에 와 닿고 보니 뜻도 않았던 삼팔선이 그어져 제 나라 아닌 것처럼 남과 북이 제멋대로 굳었다. 그래도 내 땅이라 못 갈리 없다고 삼팔의 경계선을 넘다가 뺨하고 산상에서 터져 나오는 총소리에 기겁들을 하고 서성이다 보니 동행자중 한 사람이 꼬꾸러 졌다. (『별을 켜다』)

모리배와 날강도들이 횡행하고 노동자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일거리도 집도 없는 사람들은 밖에서 밤을 새는 세상, 삼팔선으로 인한 분단의 비극적 현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다.

이외에도 「집 없는 사람들」에서는 2만여 명의 전재민들로 꽉 찬 인천의 거리와 삭막한 인심, 방공호마저 없어 밖에서 떠는 전재민들을 묘사하고 있고 「바람은 그냥 불고」에서는 친일파들이 득세한 사회상을 보여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묘사들은 단편적이고 평면적이긴 하지만 해방기라는 특수한 사회현실을 독자들에게 어느 정도 펼쳐 보이고 있다.

사실상 가치있는 문학작품이라면 객관적인 현실 중에서도 본질적인 문제, 즉 당대 현실사회가 안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들을 인식시켜야 한다. 특히 문학작품이 일차적인 현실의 반영을 통해 당대사회를 흐르고 있는 역사의 발전법칙을 드러내 보이려 할 때, 그리고 모순된 현실을 변혁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미래의 전망을 명확히 제시할 때 비로소 가치있는 작품으로서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에 비추어 볼 때 해방기 귀향소설은 단편적으로 시대적 환경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일제치하가 아닌 미군정하의 식민지 반봉건체제라는 근원적인 뿌리까지 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정할 수 있다. 그저 막연하게 독립이 못되어 그렇다거나(『혈거부족』, 『집 없는 사람들』) 전재민이 불시에 너무 들이닥치고(『집 없는 사람들』) 친일파나 모리배들이 횡행해서 그렇다(『별을 켜다』, 『바람은 그냥 불고』)는 정도에 머무르고 만다. 또한 현실에 대해 실망하고 소극적으로 적응하려 하는, 미래의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인물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성이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원인은 리얼리즘을 지향하는 작가들에게 있어서 현실의 역사적 발전경향을 드러내줄 ‘총체성의 전망’이 제대로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일제 말기의 극심한 어둠의 세계로부터 광휘로운 해방에로 이

른 후의 몇 년의 격변기 속에 흐르고 있는 남한 현실의 본질면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기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별을 한다」는 소설의 갈등 설정보다 내심의 주관적 감정에 대한 서술이 많아 수필에 가깝다는 평을 듣고 있고 「불」은 작가의 생각이 도식화되어 표현된 느낌을 주며 「혈거부족」에서는 정치의 문제를 난삽할 정도의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등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단지 「잔등」의 결말 부분에서 “할머니 장막의 외로운 등불”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로 인간애의 미덕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은 이 시기 기타 작품에 비해 한걸음 앞섰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귀향소설이 이러저러한 미성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첫째로, 기대의 좌절로 인한 여러 부류의 패배적이고 소극적인 인간상을 부각하고 해방기의 불합리한 현실상황을 진실하게 재현하고 폭로 비판했다는 것, 둘째로, 그 당시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던 민족의 동일성 회복의 어려움을 생존공간 부재라는 현상으로 형상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문학적인 가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 해방기 귀향소설은 격변기의 현실을 진실하게 형상화하고 그 불합리성을 폭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계적인 복사인 묘사적 리얼리즘보다는 진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 사회적인 본질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극단적인 궁핍이 이루어진 진정한 원인을 전면적으로 파내지 못했기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판적 리얼리즘 소설이라고 할 수 없다. 이로부터 해방기 귀향소설은 아직 성숙되지 못한 비판적 리얼리즘 소설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전 시기(20, 30년대) 비판적 리얼리즘 소설에 비해 예술성이나 비판의 심도에서 뒤떨어진 감이 있으나 일제시기의 문학의 단절기 이후에 나타나서 리얼리즘의 맥을 이어나가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지 않은 의의가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5. 결론

해방기는 시간적으로 짧았고 새로운 문학사조도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존재한 모든 것은 그 나름대로의 존재원인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고향 회귀는 해방기에 나타난 하나의 중요한 주제 유형이다. 이런 소설이 창작된 시대배경을 고찰해보면, 해방은 무엇이나 가능한 열린 상태 같았지만 사실은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닫힌 상황으로서 외세의 간섭으로 남북이 분단되고 남한에서는 미군정의 식민지 반봉건체제가 계속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귀향소설이 대량 창작된 원인은 첫째로, 인간의 귀소본능이 체현된 것이다. 고향 내지 고국에 대한 감정은 이데올로기와는 상관없이 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 실향민들의 귀향은 무조건적인 것이었다. 고향은 또한 안주할 수 있는 곳을 대변하며 마음의 귀착점을 의미한다. 즉 땅이 있고 집이 있는 곳, 마음을 붙이고 살 수 있는 곳을 가리키기도 한다. 귀향소설에서는 외세의 추위와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비호성 장소인 집의 부재상황을 보여 주어 인간의 본능적 요구인 고향회귀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둘째로, 참혹한 현실을 폭로 비판하고자 했다. 귀향소설은 해방초기의 부패은 기대가 어떻게 파멸되어 갔는가를 잘 묘사하고 있다. 동시에 혼란하고 무질서하며 친일파와 모리배들이 횡행하는 현실, 차거운 인정세태, 분단의 상황, 귀향민들의 의식주의 엄중한 결핍상태 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외에도 훼손된 귀환이나 소멸된 귀환상태도 묘사하고 있다. 셋째로, 민족의 동일성 회복의 어려움을 반영하려고 했다. 주로 주거공간의 부재로 인하여 귀향민들이 유동하는 삶으로부터 정주할 수 없고 그로 하여 기대하고 있던 민족의 동일성 회복이 어렵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밖에도 작중인물이 부성과 모성을 상실하게 한 설정도 그 어려움을 상징하고 있다.

이상의 원인으로 하여 해방기에 창작된 귀향소설은 리얼리즘소설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인물형상 부각과 사회환경에 대한 묘사를 고찰해 본 결과 귀향소설들은 묘사적 리얼리즘의 차원은 벗어났으나 사회의 본질과 핵심을 보여주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판적 리얼리즘 소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일제시기 문학의 단절기이후에 나타나 리얼리즘의 맥을 이어
가고 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공존구, 『한국현대문학론』, 국학자료원, 1997.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편, 『한국중편소설문학전집』 2, 을유문화사, 1974.
김윤식, 『한국현대현실주의 소설연구』, 문학과지성사, 1990.
박아청, 『아이덴티티의 탐색』, 정민사, 1984.
안희남, 「불」, 『한국의 현대소설 1』, 민음사, 1985.
염무웅, 『민중시대의 문학』, 창작과비평사, 1997.
이병순, 『해방기 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7.
이우용 편, 『해방공간의 문학연구』, 태학사, 1990.
이재선, 『현대 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이재선, 『한국문학의 원근법』, 민음사, 1996.
천이두, 『한국현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83(개정판).
B.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1986.
- 손소희, 「회심」, 《백민》, 1948. 5.
안희남, 「소」, 《조광》, 1946.3.(복간).
엄홍섭, 「귀환일지」, 《우리 문학》, 1946.2.
엄홍섭, 「집 없는 사람들」, 《백민》, 1947.5.
정비석, 「귀향」, 《경향신문》, 1946.10.11.
최인옥, 「개나리」, 《백민》, 1948.
「귀국한국인의 생활실태」, 《동아일보》, 1947.1.11